

한국, 남아공 잡고 U-20 월드컵 첫 승



환호하는 U-20 축구대표팀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한 정정용호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잡고 대회 첫 승을 신고했다.

한국은 29일 오전 3시30분(한국 시간) 폴란드 티히의 티히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아공과의 대회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1-0 승리를 거뒀다.

포르투갈과의 1차전에서 0-1로 패한 한국은 남아공을 누르고 1승1패를 기록했다. 포르투갈과 1승1패로 어깨를 나란히 했으나 골득실(한국 0·포르투갈 -1)에서 앞선 2위가 됐다. 아르헨티나(2승)는 포르투갈을 2-0으로 꺾고 가장 먼저 F조를 탈출했다.

‘골 넣는 수비수’ 김현우(디나모 자그레브)는 천금같은 한 방으로 이날의 영웅이 됐다. 골키퍼 이광연(강원FC)은 눈부신 선방으로 뒷문을 지켰다.

한국은 1일 오전 3시30분 아르헨티나와의 최종전을 통해 16강 진출을 타진한다. 이 경기를 이기면 자력으로 16강 무대에 합류한다. 비겨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회에서는 각 조 1, 2위와 3위 중 성적 좋은 4개팀이 16강에 오른다.

한국은 장신 공격수 오세훈(아산 무궁화)을 최전방에 둔 4-2-3-1 전술을 들고 나왔다. 이강인(발렌시아)이 공격형 미드필더를 맡았고 조

정정용호 ‘골 넣는 수비수’ 김현우 결승골

내달 1일 아르헨티나와 최종전 16강 결정

영욱(FC서울)과 발이 빠른 엄원상(광주FC)이 좌우 측면에 배치됐다.

수중전으로 펼쳐진 전반전은 예상 외로 남아공의 흐름으로 전개됐다. 남아공은 한국 수비의 뒷공간을 끊임없이 노리며 주도권을 잡았다. 전반 21분 세트피스에서 슈트를 헌납했으나 이광연의 선방으로 위기를 넘겼다.

이광연은 이밖에도 여러차례 슈트를 막아내며 골문을 든든히 지켰다. 반면 공격진은 6개의 슈트 중 단 한 개도 골대 안으로 보내지 못했다. 슈트 타이밍을 잡는데 애를 먹는 모습이었다.

후반 시작과 함께 한국의 반격이 시작됐다. 중원 싸움을 이겨내면서 분위기를 가져왔다. 남아공 선수들은 전반에 많은 힘을 쏟은 탓인지 한국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후반 7분 조영욱이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다. 오세훈이 떨어뜨려 준 공을 오른발 슈트로 연결했다. 하지만 공은 허공으로 향해 아쉬움을 남겼다. 후반 16분 정호진(고려대)의 슈트는 골대를 때렸고, 후반 22분 이강인의 왼발슈트는 수비수에 맞고 살짝 벗어났다.

1분 뒤 고대하던 선제골이 터졌다. 김정민(FC디퍼링)의 슈트가 골절 돼 높게 떠오르자 골문 앞에 있던 김현우가 헤더로 마무리했다. 김현우의 머리에 맞은 공은 남아공 골문 구석으로 빨려들어갔다. 이번 대회 한국의 첫 골.

한국은 이후 추가골을 위해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후반 36분 교체 투입된 전제진(수원 삼성)의 왼발슈트는 골키퍼에 막혔다. 이광연은 후반 추가시간 남아공의 슈트를 몸을 던져 차단해 승리를 지켰다.

F조의 프랑스는 파리의 추격을 2-0으로 따돌렸다. 독일 분데스리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서 뛰는 수비 유망주 단 악셀 자카드가 선제 결승골을 넣었다. 프랑스는 2승으로 최종전 결과에 관계없이 16강에 오르게 됐다.

같은 조 사우디아라비아는 말리를 만나 열투 끝에 3-4로 패했다. 전반 20분까지 2-0으로 앞섰지만 후반 막판 수비가 무너졌다. 3-3으로 맞선 후반 46분 모하메드 카마리에 결승골을 헌납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패로 탈락했다.

뉴시스



박한이, 너무 많은 것들을 잃었다

음주운전 적발...은퇴선언

현역 최고령 선수로 활약

징계·반성해야 지도자로

박한이(40·삼성 라이온즈)가 한 번의 실수로 불명예스러운 은퇴를 하면서 많은 것을 잃고 말았다.

박한이는 27일 오전 차량을 운전해 자녀를 등교시킨 뒤 귀가하다가 오전 9시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인근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매뉴얼에 따라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5%로 측정됐다. 음주운전 적발 직후 박한이는 “책임을 지겠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KBO리그 현역 최고령 선수로 활약하던 박한이가 올 시즌 들어 최고의 하루를 보낸 뒤 일어난 일이다. 박한이는 26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경기에서 팀이 2-3으로 뒤진 9회말 2사 1, 2투의 찬스에서 2타점 역전 끝내기 2루타를 차질. 삼성의 4-3 역전승을 이끌었다. 키움 마무리 투수 조상우를 무너뜨린 한 방이었다.

26일 경기 후 자녀의 이이스키 운동을 참관한 박한이는 자인들과 늦은 저녁을 먹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다음날 아침 숙취가 남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는데 이것이 쓸쓸한 은퇴의 원인이 됐다.

박한이는 먼저 구단에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삼성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웠지만, 그의 은퇴 결정을 만류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한이는 삼성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스타다. 2001년 삼성 유

니폼을 입고 KBO리그 무대에 데뷔한 박한이는 올해까지 19년 동안 삼성에서만 뛰었다.

삼성 유니폼을 입고 가장 많은 우승 반지를 낀 선수다. 삼성에서 7차례(2002·2006·2008·2011·2012·2013·2014) 우승을 맛봤다.

꾸준함의 대명사다. 데뷔 첫해인 2001년 117개의 안타를 친 것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16년 연속 세 자릿수 안타를 때려냈다. 통산 2174안타를 쳐 역대 안타 3위에 올라있다. 2003년에는 170개의 안타를 쳐 최다 안타 1위에 올랐고, 2006년에는 89득점을 올려 이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젊은 선수들에 밀려 입지가 좁아졌지만, 올 시즌 한 번도 1군 엔트리에서 빠지지 않았다. 그만큼 활용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해결사로 나서며 베테랑의 관록을 보여줬다.

박한이는 지난 시즌이 끝난 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었지만 권리 행사를 포기했다. 40세가 돼 은퇴 시점을 고민하던 박한이는 삼성에 남아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로 했다.

한 팀의 상징적인 존재가 된만큼 박한이의 성대한 은퇴식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였다. 또 그의 등번호 33번은 영구결번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은퇴를 선언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잃었다. 19년 땀의 세월이 허망해지고 말았다.

지도자로 가는 길도 험난해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징계를 충실히 수행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지도자로서 그라운드에 복귀하는 것도 가능한 전망이다. 박한이는 “징계, 봉사활동 등 어떤 조치가 있더라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 동부 7개 시·군 게이트볼대회 성료

우승 여천 팀, 준우승 곡성읍 팀, 공동3위 광양우보-고흥봉래 팀



우승을 차지한 여천 팀이 주성두 감독과 최수철(순천시게이트볼협회)회장 등 심판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순천시게이트볼협회(회장 최수철)는 지난 28일 순천시철도운동장 축구장에서 제186회 전남 동부 7개 시·군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군을 대표한 48개 팀 선

수 인원 약 400여 명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여천 팀(박오중 주장 김순욱, 박종안, 임동순, 조종환, 송선경 선수)이 우승을 차지했다.

결승전에서 곡성읍과 대결, 반

전에 반전을 거듭 결국 경기 종료 직전 여천 팀이 13대 10으로 역전승을 거두어 영광의 우승 깃발을 흔들었다.

우승을 차지한 여천 팀은 지난 달 23일 여수시에서 개최한 제185회 대회에서 순천 승마 팀과 맞붙어 이갑계 패배 준우승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우승기를 거머쥐었다.

여천 팀 감독 주성두(여수시게이트볼협회)회장은 “게이트볼에 대한 선수들의 대단한 열정이 오늘의 영광을 가져온 것이다”며 출전 선수들의 노고에 치하했다.

한편 최수철(순천시게이트볼협회)회장은 임상 팀의 시상을 마치고 “모두가 행복한 순천, 대한민국 생태도시 순천에서 7개 시군 동호인들을 맞이하게 되어 반가웠다”며 “제187회 대회에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는 약속과 함께 대회를 마쳤다.

순천=김승호 기자



■ 심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남 구례군은 지리산순천, 창세미골, 화엄사, 설전강, 운조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북아재-가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